

학교는 **진안**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고흥여자중학교 고일석

왜 ‘교육생태계’인가 — 지방소멸 대응의 다른 논리

학교 존치보다 ‘학교를 중심으로 사람 · 일 · 문화가 다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

기존 접근법

통폐합 · 출산장려 중심의 한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
- 출산장려금 · 결혼지원 등 저출산 자체에 집중
- 결과: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짐 — 사회적 감소 가속
- 등록인구 24,414명 · 데드크로스 · 청년 · 가족 유출 지속
- 해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

새로운 접근법

학교를 중심으로 생태적 삶의 질 향상

- 학교 존치 자체보다 ‘연결 구조’를 만든다
- 진안의 자산(산림 · 고원 · 문화)을 교육과정으로 환원
- 농촌유학을 교육귀촌으로 확장해 가족이 정착
- 학교 · 폐교 · 마을이 교육문화복합거점으로 함께 기능
- 정주 매력 + 교육의 질 + 진로 생태계 동시 달성

지속가능한 진안을 위한 정책 방향 4가지

01 · 네트워크

통폐합 대신
작은학교 네트워크화

02 · 지역연계 교육

지역자원을
진안형 교육과정으로 연결

03 · 학교의 플랫폼 기능 확장

지역사회를 품은
교육문화복합시설 구축

04 · 거버넌스

학교 · 마을 ·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거버넌스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

교육트렌드

- 2026년 교육트렌드 분석의 조건
- 한국 교육이 직면한 10대 쟁점과 과제
-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현장의 모색과
- [특별기획] 핀란드 교육, 신뢰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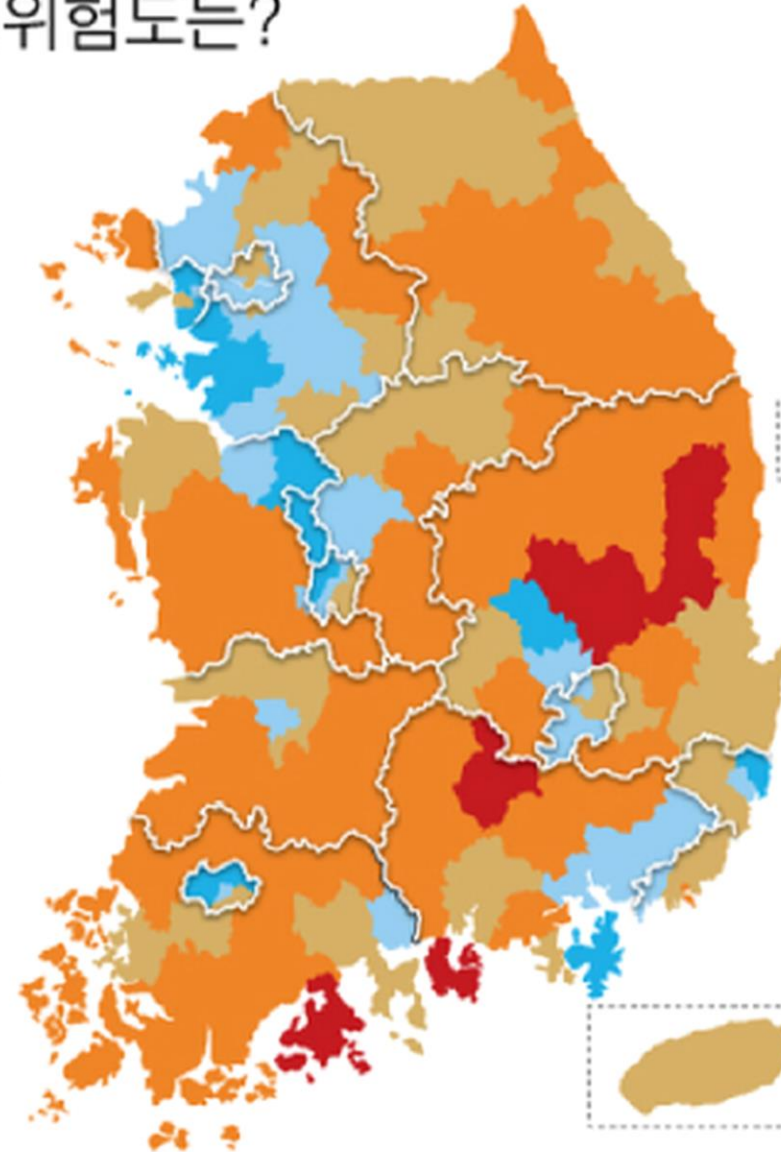
228곳 지자체 소멸위험도는?

2017년 소멸위험지수

0.2 미만	소멸 고위험
0.2~0.5 미만	소멸 위험 진입
0.5~1.0 미만	소멸 주의 단계
1.0~1.5 미만	정상 단계
1.5 이상	소멸 저위험

소멸위험지수는?

65세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중. **0.5 이하**면
30년 내 소멸 가능성 크다고 판단



함께 넘는 소멸 위기

작은학교공동교육과정으로 큰 배움터 만들다

1. 작은학교를 하나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연결

01 고흥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준비단계]

- 교사공동체 회복
- 교외 전학공 및 교과연구회 구성 지원
-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권장

[개발단계]

- 주제 선정
- 교육과정(교과중심형, 교과융합형, 지역연계형) 개발
- 운영방식(고정형, 집중형, 혼합형) 협의
- 교육과정 개발시 유의점
 - 10차시 이상 운영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교육과정과 통합 편성
 - 교수평기 일체화

[운영단계]

- 권역단위 희망학교 배정(초)
- 교과별 희망교사 중심 배정(중)
- 팀티칭을 위한 교사역할 분담
- 공동교육과정(수업+평가) 운영
- 수업나눔과 성찰 워크숍 운영

고흥교육지원청의 역할

- 교과별 교사네트워크 회복
-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 교원 공동교육과정 설계 워크숍 기획 · 운영
-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공유카페(지역브랜드 카페)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지원(1인당 500)
- 공동 급식 협조(행정지원과)
- 에듀택시 배차 및 운영 지원
- 신규교사 성장아카데미 운영
- 선진교육(스페인, 호주) 탐방 기회 제공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이란?

작은학교 학생의 다양한 학습 경험과 배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학년(교과)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소통과 협력이 보다 효과적인 수업단원(주제)를 추출하여 소규모학교(소인수 학급)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추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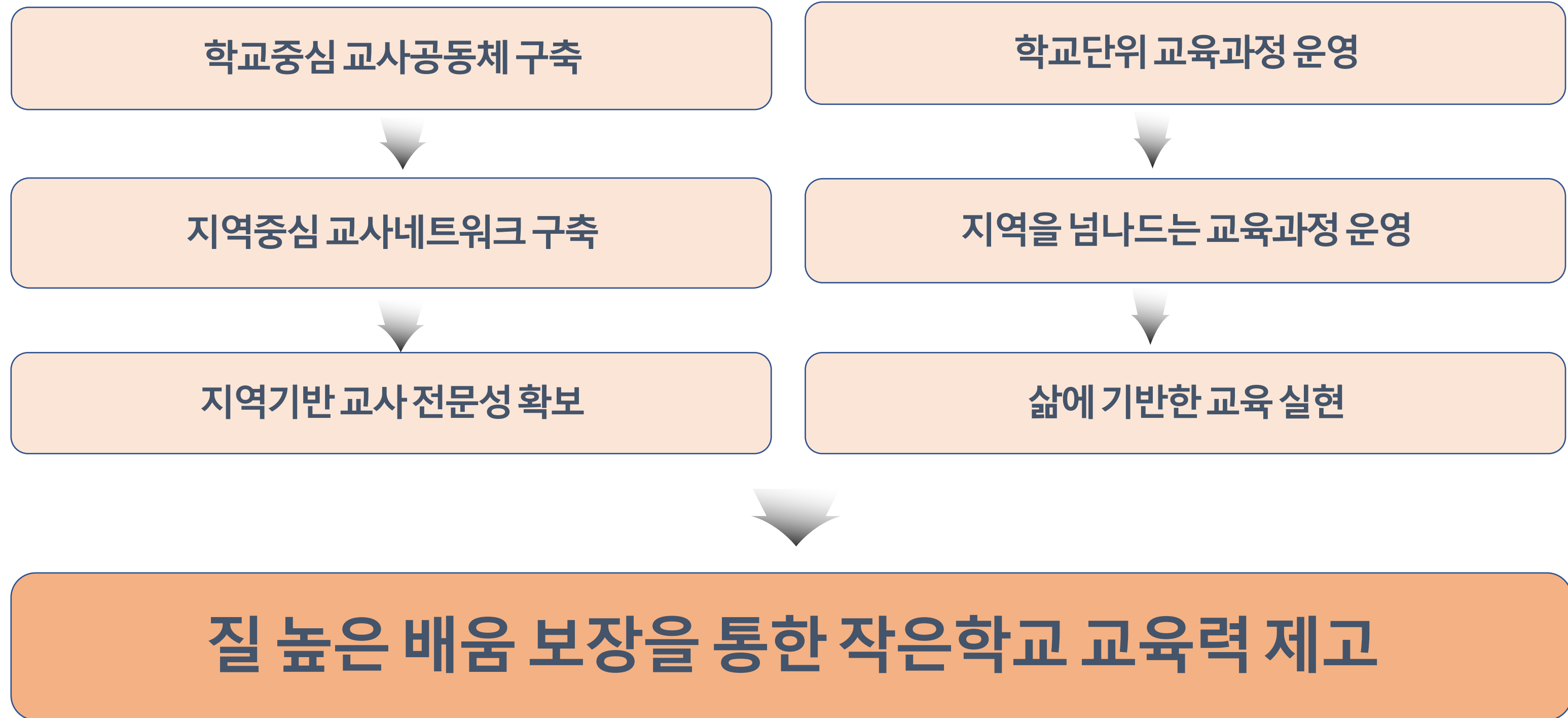
소규모학교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

일회성 행사나
체험학습 지양

교육과정과 수업중심

교사의 자발성과 성장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의 목표



고흥교육지원청, 중등 사회과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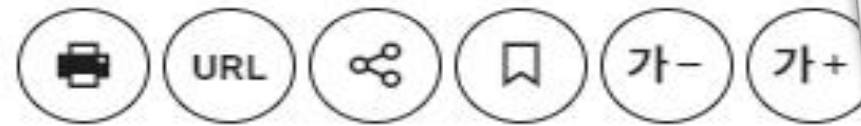
교육과정 내실화에 기반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포토뉴스

입력 2023.09.13 09:22

수정 2023.09.13 09:22

담당자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9월 12일 오마간척한센인 추모공원에서
발을 내딛었다.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이란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적정규모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역량 강화 및 학습의욕 고취의 효과를 얻고자



2023. 고흥 중등 사회과 공동교육과정
고흥 어디까지 가봤니? #오마도편
함께 : 고흥대서중, 고흥도덕중, 고흥도화중, 고흥점암중양중, 고흥풍양중, 금산중, 동강중
✓ 일시: 2023. 9. 12.(화) ✓ 장소 : 오마간척한센인추모공원



계간: 4월
마늘: 15일 ~ 20일
포도씨유: 3Ts

단편영화 시사회

일시: 중등_2023. 10. 19.(목) 13:00
고등_2023. 10. 20.(금) 13:00
장소: 고흥교육지원청 Wee센터 다목적강당

고흥교육지원청

단편영화 시사회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NewChallenge

실패, 과정, 성공

주관: 흥남고등학교

2023 고등 청소년 단편영화 시사회

녹동고등학교 칸

잃어버린 일기장

2023 고등 청소년 단편영화 시사회

고흥고등학교 하필

I LOVE SIN



그림책 번역봉사 책친구산담

당신의 번역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합니다.



아름다운배움 해외봉사 캄보디아 비전 트립

2024년 1월,
20명과 함께한 캄보디아 7일간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2024. 고흥예술교과 공동교육과정 [숲에서 놀자]

생태숲 놀이터 조성과 가을숲 작은음악회 개최

- 교과융합형 (음악, 미술)
- 작은학교+읍내권학교 통합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마을학교+지역청년활동가)
- 지역출신 문화예술인

■ 학교중심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중등)

- 참여학교: 고흥도덕중, 금산중
- 참여학년: 1,2학년
- 참여교과: 영어, 과학 교과별 10차시
- 운영방식: 매주 1회(수요일)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초등)

- 점남대 프로젝트(점암초,남양초,대서초)
- 공동체놀이, 또래관계형성 등(1학년)
-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중심(3학년)
- 과학탐구,과학체험 등(5,6학년)



| 교육적 성과와 의미

01 학생활동중심 수업으로 질높은 배움 실현

02 학생의 관계성 강화와 토론중심 교육활동 구현

03 지역연계 교육활동으로 배움의 공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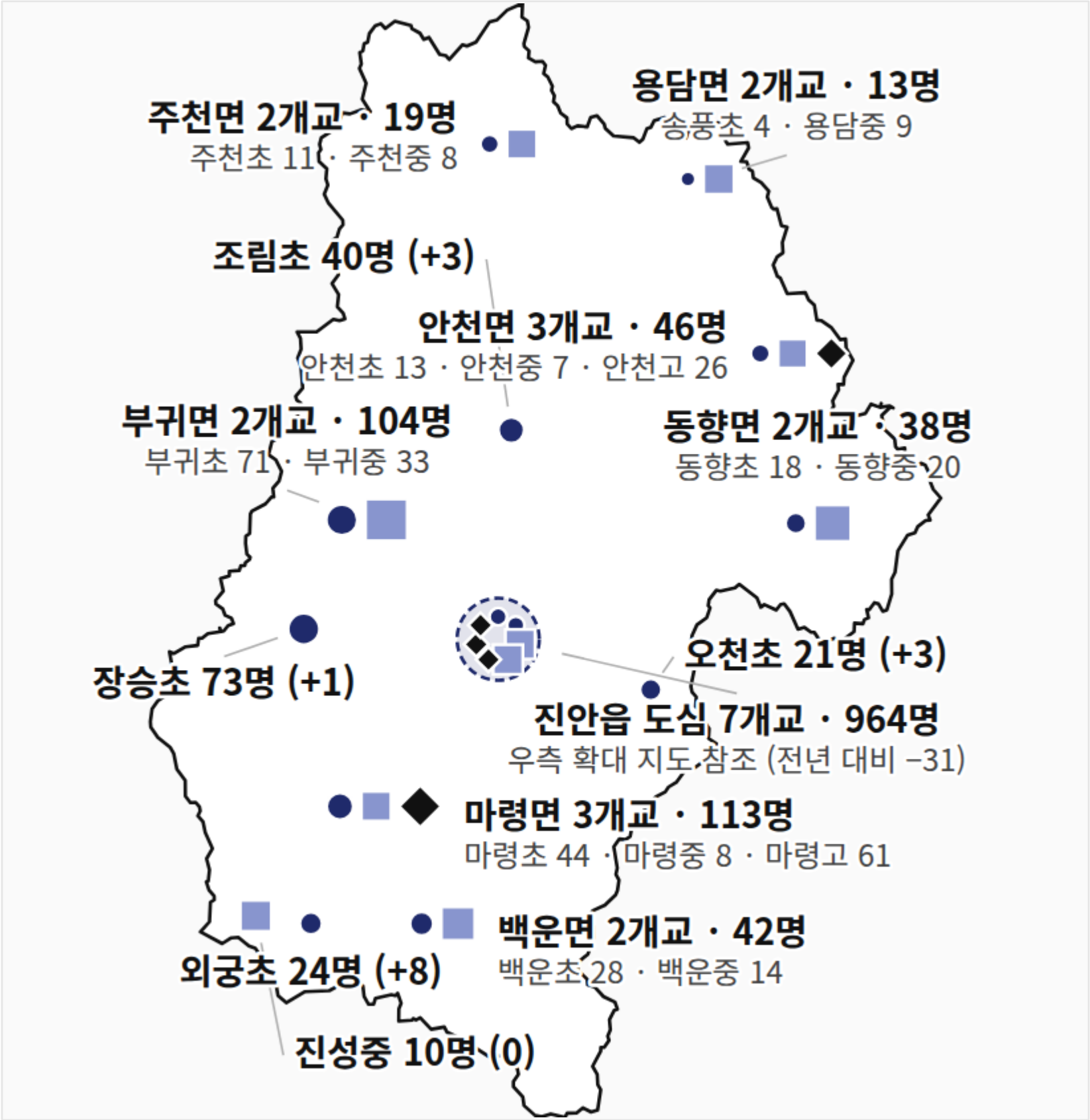
04 교과(학교)중심의 지역연계 교육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05 지역내 자발적 교사 네트워크 구축

06 지역단위 교사성장시스템 운영

진안군 초·중·고 학교별 위치와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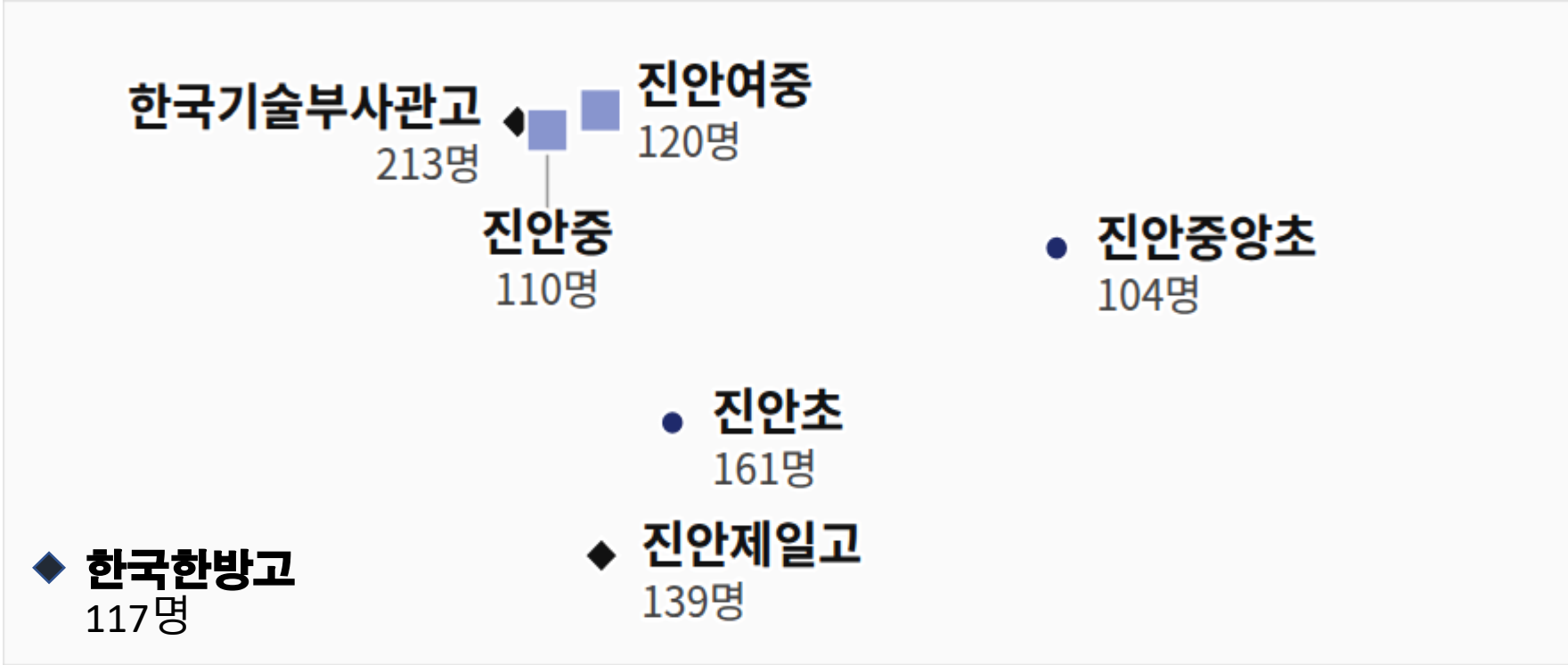
28개교 · 1,507명 (2026년 학교알리미 공시 기준)



● 초등학교 13교 ■ 중학교 10교 ◆ 고등학교 5교 도형 크기 = 학생 수

진안읍 도심 확대 — 7개교 964명 집중

전체 학생의 64.0%가 반경 2km 안에 모여 있다 (2025년 66.0% → 2%p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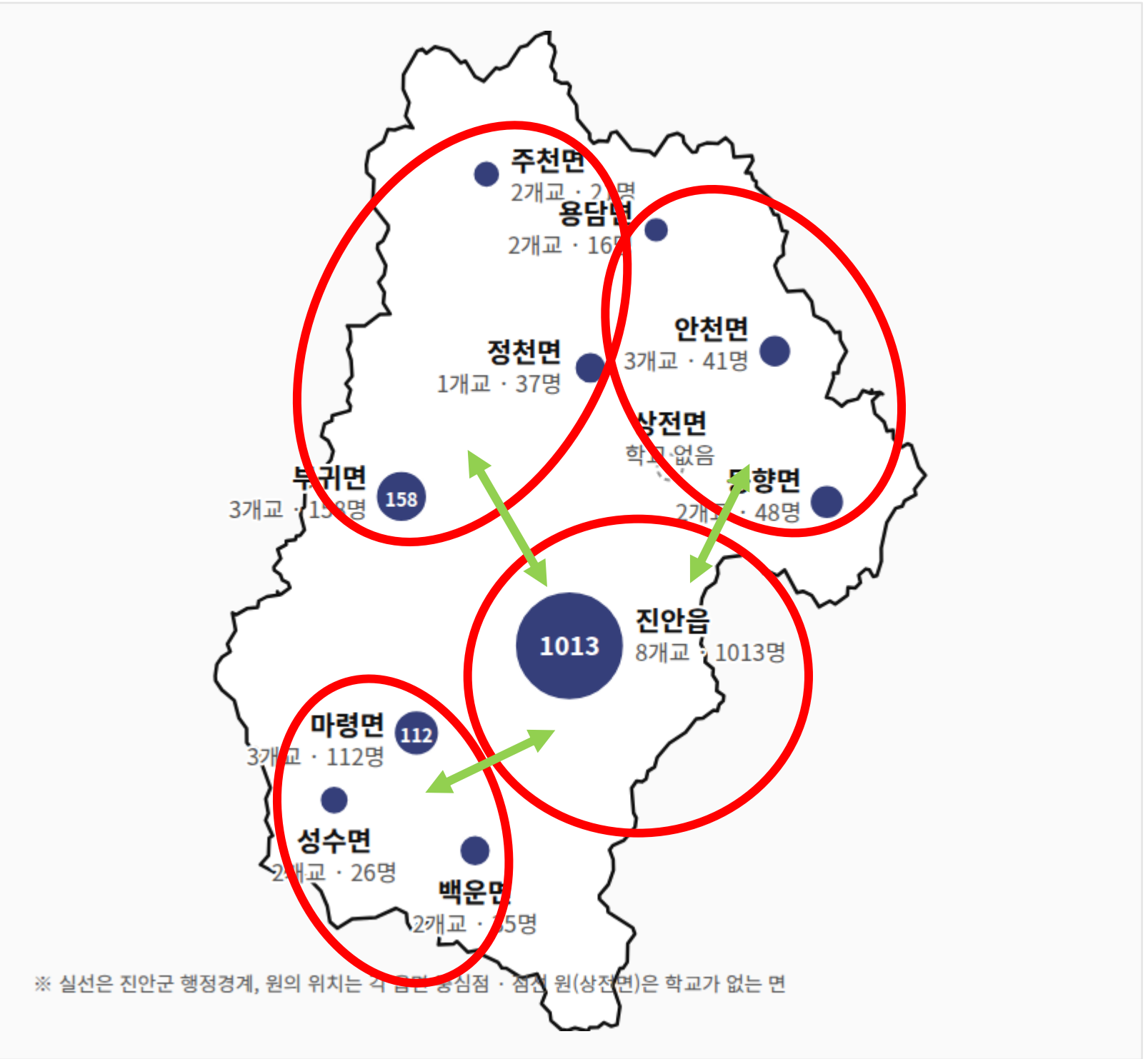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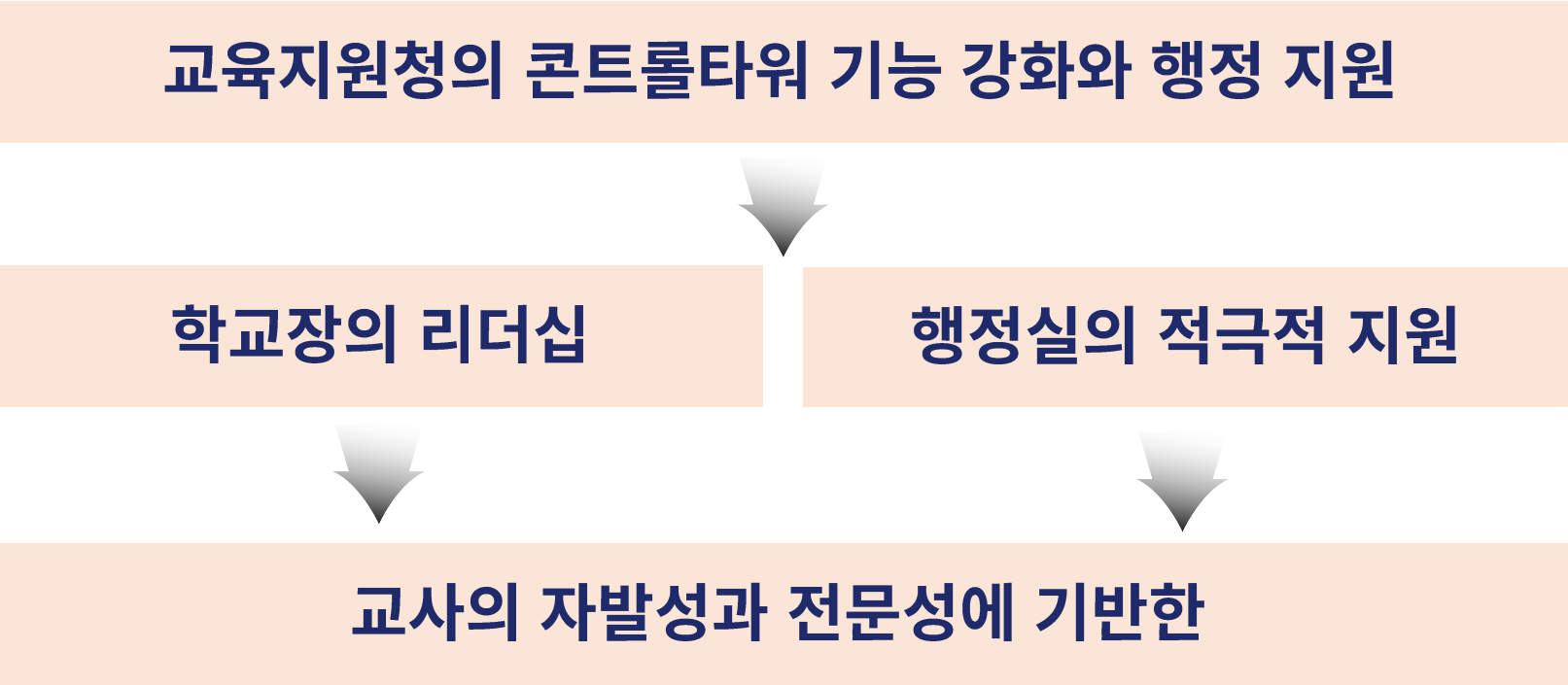
초등학교 13개교 612 명 전년 대비 +10	중학교 10개교 339 명 전년 대비 -37	고등학교 5개교 556 명 전년 대비 +27
--	---------------------------------------	---------------------------------------

현황 분석
전체 1,507명 — 중학생 -37을 초등 +10 · 고등 +27이 상쇄
진안읍 964명(64.0%) · 부귀초 +23 반등 · 송풍초 4명 최소 · 상전면 학교 없음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의 진화

01 교사중심 → 학교중심으로 전환

- 초등 13개교 · 중등 10개교를
권역별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연결한다
- 공동교육과정 / 공동동아리 / 공동 현장체험학습
 - 순회교사 · 공유버스 · 온라인 공동수업
 - 면 단위 학교: 마을밀착형 기초교육 + 자연 · 생태 프로젝트
 - 읍 중심학교: 심화선택 · 예체능 · 진로탐색 허브
 - 학교 규모에 따라 역할만 다르고, 모두 하나의 권역 안에서 작동



2. 학교교육과정의 지역화

02 지역자산 기반 '진안'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자유시간 · 자유학기 · 프로젝트 수업을
진안 자산과 직결시켜 재구성한다

- 초등: 생태감수성 · 마을읽기
- 중등: 지역문제 해결 · 진로탐색
- 마이산 · 용담호 · 산림치유원 · 홍삼 · 농업 · 금척무 연계
-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생 중심 · 연계성과 정합
- 일상에서 '진안 시민성'을 길러 정주 매력 강화

역사

문화

자연

산업

사람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다시 지역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될 것이다.



2025. 지역연계 미래학교 공동교육과정

로컬드림 프로젝트

고흥여자중학교

디자인하라...고흥의 미래

지역사회 영역(2학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과제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탐구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며, 현장방문과 심화탐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지역사회의 미래, 청년세대의 삶의 대안을 찾아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학생주도형 역량중심 교육과정]

주요영역



6차산업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한 산업을 의미한다.



청년세대

나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지역기반 도전을 즐기는 청년세대로 성장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비롯한 광범위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일컫는다.



생태환경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중심을 넘어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미래사회를 만들어 간다.



마을교육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1. 도시재생관련(시설복합화, 청년일자리 등)
고흥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 지역사회와 청년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 작가 겸 청년활동가
3. 고흥천의 생태
생태교육전문가(퇴직교원) 초청 특강 및 탐구활동 인솔





제주 환상숲 숲자가 알아 들려주는
숲과 사람 이야기

KBS <영양극장>, JTBC <영양극장 이야기>, <영양극장 2>, <영양극장 3> 등
내 단점을 들이지 않을까, 손해 보지 않을까
경계와 긴장의 연속인 일상 속에 혹 들어온
맑은 공기 같은 이야기들!



수학여행

Insight Tour



로켓트 인사이트 투어

[개자인하라!!! 고흥의 비례]

장소: 제주도 일원

주최: 고흥여자중학교



이호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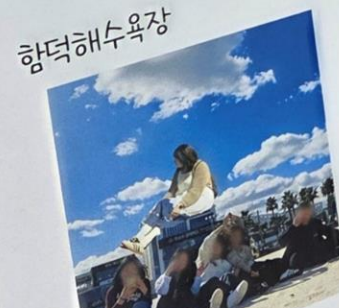


제주도 1일차



동문시장

제주도 2일차



함덕해수욕장



소품샵



종달리 마을

마을에 온



Q. 근무 중 힘들었던 점
- 외국인들이 많아 언어와 문화 차이가 힘들었다.
Q. 가게 운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고객에 친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Q. 홍보 방법
- 특정한 메뉴 만들기, 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인테리어

소소한 책방



Q. 책방이 손님들에게 느꼈으면 하는 것
- 단순한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대화하며 교감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Q. 홍보 방법
-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였고, 대박이 난 날이 있을 것임 확신하고 있다.

고흥의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



청년 창업 지원

청년들이 창업 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금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청년 창업 지원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넷파장

인터뷰를 하며 느끼게 된 가치

- 1. 장사를 하면 힘들긴 하지만 얻는 행복이 많다.
- 2. 신뢰와 진실이 중요하다.
- 3. 사소한 것 해결 것이 아니라 손님이 태도도 중요하다.
- 4. 힘들고 극복하는 방법은 주변에 있다.

하천재생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하고 왜 필요할까?

- 활용 등이 이루어져서 나무/꽃 등을 많이 심는다
- 표지판을 만든다

제주를 가고 느낀 고흥에게 제안할 점

- 귀촌 가족들과 고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많은 지원하기
- 쓰레기를 포함한 정화 시설 많이

Q. 쓰레기/바다 정화 시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왜 필요할까요?

- 쓰레기가 많은 바다는 생물들이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 태양광 자동 수거기 만들기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 쓰레기 분리수거 수 늘리기

고흥의 발전 인사이트 투어

2주동 김계남 김계현 김계현 신수민 최서우 최유

2026. 로컬드림 프로젝트 정책제안 한마당





고흥천의 미래 조감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깨끗하고 활기찬 고흥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하천

맑은 물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아갑니다.



시민이 즐기는 공간

산책로, 자전거길,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

친수공간 조성과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활성화됩니다.



깨끗한 수질 회복

하수 정비와 수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고흥천이 됩니다.



녹지와 생태 복원

하천 주변에 나무와 꽃이
심어져 생태계가 회복되고
자연이 풍요로워집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고흥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지속가능한 진안교육을 위한 기본과제

01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지속가능성, 교사에게서 나온다

진안교육을 깊이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교사워킹그룹 구축

- 진안교육플랫폼(교육지원청+학교 협력)
- 마을과 함께 하는 지속적인 진안교육 공론장 마련
- 지역정주를 지향하는 지역교사제 도입
- 커뮤니티형 교직원 관사 제공
- 워킹그룹 중심 진안교육 정책연구 및 실천
- 신규교사 아카데미 운영
- 영역별(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등) 전문가 성장 지원
-
- **학교교육과정 내실화로 진안교육의 질 향상**

02 마을교육공동체 완성

[학교] 지역을 넘나드는 교육플랫폼

- **학교의 역할과 기능 확장:** 진안의 교육 · 문화 · 돌봄 · 지역민을 위한 **복합시설**
(방과후 · 돌봄 · 청소년공간 · 작은도서관 · 디지털학습실 · 평생교육을 결합한 **지역거점**)

[마을] 배움터 기능 회복

- **마을의 역할과 기능 회복:** **마을배움터** 조성 및 확대
(마을학교 · 교육협동조합 · 진로체험처 · 생태학습장 · 청소년예술공간
· 주말학교 · 로컬청년창업실 재구성)
-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 지역주민: 교육의 소비자 > 교육의 주체로 참여
 - 마을강사 > 마을교육활동가로 전환
 - 지역과 학생의 성장에 기여

결론

VISION

“학교가 살아 있는 마을에
사람이 돌아오고,
사람이 머무르는 진안”

진안의 지속가능성은 학교를 살리는 데서 시작해, 사람을 다시 잇는 데서 완성된다.

작은 학교를 23개 그대로 살리되, 23개교를 급별, 권역별 하나의 학습권역으로 묶어라.

진안의 산림 · 고원 · 문화 · 산업을 [문제해결형] 진안교육과정과 진로연계 교육으로 환원해라.

학교 · 교사에게 집중 투자하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낼 것이다.

마을 · 산업체 ·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라.